감쪽같은 하나님 실종의 구멍

(사무엘하 11:1~5)

1.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감쪽같은 하나님 실종의 구멍>이라는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감쪽같은 하나님 실종의 구멍'

정말 감쪽같이 누군가가 실종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경복궁에서 몇 시간 동안 감쪽같이 실종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이 노랗고 천지가 무너진다.'는 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제가 실종이 되었으니 실종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집사람하고 같이 마트에 가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저는 앞서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가 허전해서 보니 집사람이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그야말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몇 걸음을 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순간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넓은 주차장에서 무슨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차를 세운 곳으로 와봤는데도 보이지 않아서 빙 돌며 걷는데 차 반대편에서 소리도 못 내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으키는데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주차장 바닥에 튀어 나와 있는 방지턱에 걸려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동차들 사이에 쓰러져 있으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과연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엄마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면 누구에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조차도 조금만 세상에서 바쁘거나 집안에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쪽같이 실종되었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왔던 것처럼 반복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감쪽같이 실종되어 버리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마음먹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에게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실종되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단순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다윗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대신에 골리앗을 먼저 보고 있을 때에, 열다섯 살 남짓의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현장에서 골리앗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보며 할례 받음에 대한 자아의식을 표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만물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를 어떤 대상보다도 먼저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를 때의 그 마음이 지금 왕궁을 거닐게 된 시점에서도 유지되고 있어서, 목욕하던 밧세바보다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권을 남용해서 강압적으로 동침하여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도 이전의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들어와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다윗이 칼을 든 손을 한 번만 움직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고, 억울한 도망자의 신세로부터 해방될 기회였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해치고 싶은 유혹이나 밧세바를 범하고 싶은 유혹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할지를 재보면 밧세바에 대한 유혹은 짚에 붙었던 불과 같이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사울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보았던 다윗은 이러한 유혹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먼저 보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볼 때에 하나님이 감쪽같이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나, 불통이나, 패배라고는 없는 삶이 지속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하는데 다윗은 군대와 함께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밧세바 사건 바로 직전에 굳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모독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도중에 중단되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그 중단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이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주로 전쟁이나 국가적인 행사는 건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조문객을 욕보이며 일어난 전쟁은 예상 못한 시기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승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이 암몬이 후퇴하여 랍바 성읍에 들어가자 우기가 찾아오고 요압이 회군하게 되었습니다. 이 완결 짓지 못한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었는데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저녁 무렵에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는 말에서 비추어 볼 때 전쟁에 대한 아무런 의식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전의 전쟁에서 랍바를 점령하지 못했고 우기 때문에 철수했었지만 완연하게 승기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왕이 된 후로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전쟁을 이겨왔고 특히 이 암몬과의 전쟁은 이기고 있었던 전쟁을 이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승리와 형통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연시 여기며 으레 이기겠거니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으며 왕궁에 머물면서도 전혀 전쟁을 상관하지 않고 낮잠을 자거나 왕궁을 거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쪽같이 실종되신 구멍입니다. 우리는 으레 그러려니 하고 당연시하는 삶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관 짓지 못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 사지를 움직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젊었을 때에 편하게 움직였던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오른팔의 근육이 불편해져서 왼손과 오른손의 움직이는 것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상신호가 오고 있는데 젊었을 때에는 당연시하며 살았습니다. '당연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철옹성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다윗조차도 끊임없는 형통을 당연시 여기게 되면서 그 믿음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형통을 당연시 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출발할 수 없게 됩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해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신다고 믿는다면 대낮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겠지만 그것을 당연시하고 으레 그러려니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자연(自然)적으로(스스로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감쪽같이 실종시키는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기에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당연시 하십니까? 그렇게 건강함을 당연시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삶 전체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와 착시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보기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궁과 우리아의 집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확연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을 리가 없고 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저녁 무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얼굴이 심히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는 착각이고 착시일 뿐입니다. 실제 아름다웠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고서 느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돈 10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고 하는 말은 '목욕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면 아주 만족하고 기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실종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품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면 심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지 않으면 골리앗을 볼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사울 왕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듯이 밧세바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었다면 밧세바를 그렇게 심히 아름답게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심히 아름답고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는 확신이 드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종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히 아름답게 보여서 저것만 가지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것만 같은 착시와 착각과 오해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다윗처럼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얻기 위해 추진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게 되고, 그렇게 아기를 갖게 된 후에는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다윗은 상상도 못할 괴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당연시 여기던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쪽같이 실종되어 버림으로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 당연시 여기던 것들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을 자연법칙으로 말하며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해와 달을 뜨고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마음 바깥에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사소한 모든 것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가짐으로서 마음이 기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마음으로 흡입함으로 주홍빛 같이 얼룩져 있던 마음을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서 순백으로 만들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돈, 여자, 건강, 취직, 업무, 사업, 결혼 등) 관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이었고 사울 왕 앞에서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앞에서의 다윗처럼 당연시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뜨는 태양과 달도 새 태양과 새 달이 되고, 아내와 남편도 새 아내와 새 남편이 될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으레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부로서 붙잡아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직장에 나가게 해주시고, 이 버스를 타게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으레 당연시 되는 마음이 세상 전체에 대해 죽음으로서 극복해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삶에 사방에 뻥뻥 뚫린 하나님 실종의 구멍으로 착각과 착시와 오해로 이끌려지는 지옥의 삶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전면적으로 죽음으로서 으레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 티끌조차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